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1>
(修習止觀坐禪法要)

제2장 가욕(詞欲) ③ 끝

본성을 좀먹는 오욕 반드시 끊어야

此五欲法 與畜生同 一切衆生 常爲五欲所使 名欲奴僕 坐此弊欲 沈墮三途 我今修禪 復爲障蔽 此爲大賊 急當遠之

다섯 가지 욕구에 대한 법은 인간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세상 밖의 전혀 다른 영역인 귀신·축생·하늘나라 신선세계에도 인간세상과 마찬가지로 욕구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은 오욕을 마주하는 오근(五根)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관찰해보면 삼계육도 일체 중생은 항상 오욕의 지배를 받는다. 이에 따라 육계 중생들은 욕계탐애[欲愛]를 추종하는 종이라고 하겠는데, 육계중생들은 욕에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오욕에 가리워 각자 지은 업의 정도에 따라서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삼악도에는 화도(火途) 혈도(血途) 도도(刀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생들은 불길의 아래, 위로 덮치면서 영겁토록 불속에서 타는 고통을 받는데, 이를 '화도'라고 부른다.

다음으로는 축생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피차가 피를 마시는 괴로움을 간단없이 감내해야만 하는데, 이를 '혈도'라고 한다.

다음으로 아귀도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귀신 왕으로부터 갖가지 칼과 지팡이로 때리고 핏개치는 참지 못할 고통을 끝없이 당하는데, 이를 '도도'라고 한다.

우리가 이미 선정을 닦은 후 다시 오욕에 침몰하여 그 장애를 당한다면 이것이 야말로 우리의 본래 밝은 본성을 좀먹는 큰 도적이요 하겠다. 따라서 오욕을 화급하게 멀리해야만 한다.

如禪經偈中說
生死不斷絕 貪欲嗜味故 養冤人丘塚 虛受諸辛苦 身臭如死屍 九孔流不淨 如廁蟲

樂糞 愚人身無異 智者應觀身 不貪染世樂 無累無所欲 是名眞涅槃 如諸佛所說 一心一意行 數息在禪定 是名行頭陀

범부중생은 무량겁 이래로 변함없이 삼계육도에서 윤회를 반복한다. 육도에서 중생들의 생사가 단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욕을 탐애하고 그 맛을 지나치게 좋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욕이 비록 오진경계라고는 하나 그것은 각각의 차별적인 종류와 그에 따른 차별적인 맛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부중생이 그 맛을 본 뒤에는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가 힘들다.

세간 사람들이 오욕에 집착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주변환경 가운데서 어떤 것이 탐애할만할 색욕이 아니고, 어떤 것이 들을 만한 소리 아니고, 또한 냄새를 맡고 맛에 집착하는 오욕의 경지가 아닌 것이 있겠는가.

중생들은 오욕의 맛에 탐애를 하기 때문에 생사가 단절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원한을 길러 그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듯이 어리석고 부질없이 모든 괴로움을 허망하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는 한갓 수고스럽게 본래 없는 괴로움을 스스로 조작하여 파도가 끝없이 움직이듯이 그칠 줄 모르는 것과 같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죽은 시체와 같이 악취가 나고, 몸의 아흙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물질이 흘러나온다. 예를 들면 눈에서는 눈곱이 끼고, 귀에서는 귀지가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흐르고, 소변과 대변에서는 냄새나는 물질이 나온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이같이 청정하지 못한 허망한 욕심 때문에 끝없이 오욕을 탐애한다.

이는 마치 화장실에 별레가 오를 가운데서 더러움을 모른 채 청정한 경지로 착각하고 쾌락으로 즐기는 것과도 같다. 중생들이 오욕에 탐착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 이유는 살피고도 타파하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 허물을 투철하게 꿰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의 몸은 비록 외형은 다르나 할지라도 청정하지 못한 오욕에 집착하는 점에 있어선 실제로 차이

없고 욕구가 없다면 결립도 없게 된다. 이는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립이 없는 경지인데, 결립이 없으면 생사에 대한 공포도 없고, 공포도 없다면 꿈처럼 뒤바뀐 망상도 멀리할 수 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오욕에 대한 관찰이다.

이를 진실한 열반이라고 하고, 또는 청정실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생불멸이라고도 말한다. 그 경지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자성정정심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의 마음에 종일토록 망상이 어지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멸도 쉬지 않는다. 이것은 고요 적정한 열반을 전환하여 망상으로 요동하고 생멸하지 않는 자성정정심이 생멸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에 이르러선 우리가 본래 지녔던 청정한 열반을 실제로 등지지 않는 상태에서 등지게 된다.

따라서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이 설했던 탐욕의 상념에서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의 언덕에 오르며, 번뇌를 전환하여 올바른 법칙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오욕을 멀리 버리고 육근을 하나로 거두는 일은 즉 육식의 어지러운 망상을 일념으로 회귀하는 데는 별다른 길이 없다. 단지 일념으로 수행하여 안으로는 육근을 거둬들이고 밖으로는 육진을 반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심으로 서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본래 고요한 자성인 청정한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수행을 번뇌를 털어내는 두터행이라고 한다.

요컨대 수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욕 경계로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하나의 무념으로 거둬들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 송진우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구생혹과 분별혹

근본번뇌는 성격상 선천적인 '구생혹(俱生惑)'과 후천적인 '분별혹(分別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생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시에 일어나는 번뇌이므로 그 활동하는 모습이 깊고 은미하여 외부의 인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현재의식의 사고검증을 기다리지 않는 상태에서 항구하게 임의적으로 윤회하면서 일어나는 잠재의식 속의 번뇌활동입니다. 때문에 잠재의식, 즉 제7에서 활동하는 번뇌를 구생혹이라고 합니다.

구생혹은 사물에 어두워서 일어나는 번뇌이기 때문에 미사혹(迷事惑)이라고도 하고, 과거 생으로부터 몸에 배어 끊기 어려우므로 둔사혹(鈍使惑)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분별혹은 현재 의식으로 분명히 인지(認知)할 수 있는 번뇌활동입니다. 따라서 구생혹과는 달리 외부에 주어진 환경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바른 지식이나 스승, 또는 나쁜 친구 등의 잘못된 인연에 이끌려야만 그것에 의해서 내적으로 허망한 분별사려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생혹은 잠재의식속 번뇌활동 진리 미혹하는 분별혹 끊기 쉬워

분별혹은 진리를 미혹해서 일어나므로 미리혹(迷理惑)이라고도 하고, 그 세력이 맹렬하기는 하나 끊기 쉬워 이사혹(利使惑)이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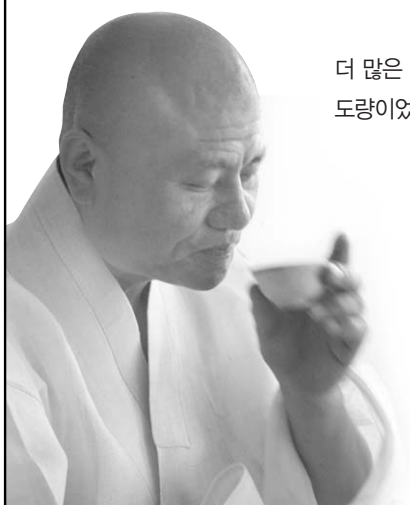
구생혹과 분별혹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본 번뇌 가운데서 '탐심'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생탐심'은 잠재의식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활동하는 범위가 가장 광대하고 종류 또한 한량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물에 부딪치는 대로 항구하게, 즉 금생과 내생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의식으로는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를 즉시 자각할 수만 있다면 수행이 한결 쉬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별탐심'은 우리의 현재의식인 제6의식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이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분명명 의식 활동 상태를 말합니다. ■ 정리=張如舟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동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동지 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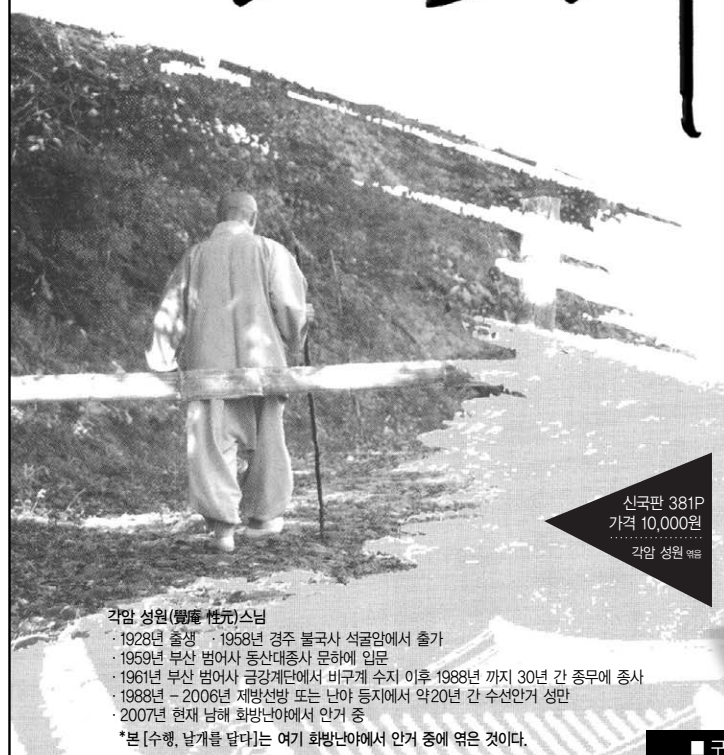
- 현대불교신문 -



신국판 / 10,000원

현대불교신문 (051) 244-1251 (02) 2198-5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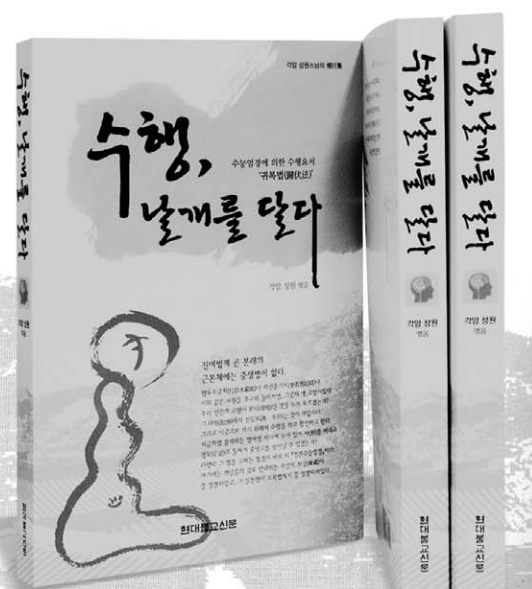
수행, 날개를 달다



이 몸을 선창에 맡긴지 50여 주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백발이 성성해졌네. 돌아다보니 구하고 채우고에 동분서주하느라 발밑도 못 밟히고 심전(心田)에 여수(旅愁)만 더 했네. 이제 겨우 철들어 서둘러 병축을 들었으나 가을이 다 갔는데 잔화가 난만한들 얼마나 견디겠나? 고요한 밤이면 깊은 생각에 더욱 잠 못 이루는 누가 있어 뱃속을 파고드는 이 통헌을 알겠는가?

내 이제 몸을 태산처럼 하여 일체의 왕래를 끊고 날마다 청계에 나가 속진을 씻어 내면서 눈, 귀, 입, 막는 그러한 수행으로 전년을 다스려서 빈 배로 소요하는 이런 것으로 선력을 삼을 것이다.

- 본문중에서



신국판 351P
가격 10,000원
각양 성원 역

각양 성원(覺養 性元) 스님
1928년 출생 - 1988년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서 출가
1959년 부산 범어사 동선대종사 문하에 입문
1961년 부산 범어사 금강계에서 비구계 수지 이후 1988년 까지 30년 간 중우에 중사
1988년 - 2006년 재향선방 또는 난야 등지에서 약 20년 간 수선인거 성만
2007년 현재 남해 화엄사에서 안거 중
*본 '수행, 날개를 달다'는 여기 화엄사에서 안거 중에 엮은 것이다.

■ 구입처 02)2004-8237 종로구 인곡동 175-87 현대불교신문